

재주비, 고라워

RaonAttē 13th MYANMAR YANGON

또 네번째 이야기





| contents |

Raonatti Activity

흘랑따야 | 마오골라바 | 쉼빠다 | 양곤Y널서리 | 아띠클럽

중간평가

Homestay - KALAW MYINKA

새로 생긴 가족 소개

러브하우스 제 2탄

활동_널서리스쿨과 농장

우리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피드백

350PPM

Inside 라온아띠

① 산드라 딸 생일

② 산 state 여행

③ 밍카 vs 따웅라 축구경기 관람

④ 기쁨언니/누나(라온아띠1기)가 밥사준 날

부록

버터씨의 버터시

다섯의 이야기 Essay



JUNE. 2015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1 흘랑따야 동요 주간사님♥	2 흘랑따야 모자이크	3 마오플라바 체조	4 중간평가 보고회	5 BBB코리아 KB사무소 쉐다곤	6 보족시장 AttiClub	7 휴일
8 흘랑따야 체조	9 마오플라바 과일 색칠	10 양곤Y 올챙이 접기	11 쉐빠따	12 휴일	13 휴일	14 산드라 딸 생일
15 산 state 출발	16 인레 호수 벤떠야 파고다 걸로 도착	17 산드라와 함께 학교 구경	18 널서리 페이스페인팅	19 널서리 모자이크 셀로 가출	20 첫 농장	21 휴일
22 농장	23 널서리 점선도 형 따라 그리기	24 널서리 사과 접기	25 널서리 올챙이 접기 퀘웨 홈스테이	26 널서리 과일 색칠	27 MYIN KA 산책	28 걸로 시내 축구경기 구경
29 휴일	30 널서리 체조					



RAONATTI ACTIVITY 01

홀랑따야 | 마오꼴라바 | 쉼베따 | 양곤Y널서리 | 아디클럽

Hlaingtharyar North Okkalapa Shwepyithar Yangon YMCA



6월의 활동/향후활동계획

흘랑따야

- 모자이크(거북이, 나비, 고래)
- 체조

먀 오폴라바

- 체조
- 과일색칠

쉐삐따

- 학교 수업 참관

양곤Y

- 올챙이 접기

※ 널서리-동화책 번역 및 제작 후 전달, 위생교육
쉐삐따- 학교 수업 총 2회 참여

활동 전체 피드백

꺄로에서의 2주간 홈스테이가 확정됨과 동시에 기존에 활동하던 양곤에서의 활동을 잠시 중단해야 했다. 단원들은 영영 못 만나는 이별은 아니지만 기존에 활동하던 곳에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였고, 꺄로로 떠나기 전 일주일 동안 활동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원들은 선생님들께 2주 동안 꺄로로 갈 것이라 먼저 말씀 드린 이후 아이들에게도 차근차근 우리의 상황을 설명했다.

쉐삐따의 경우, 아이들이 개학을 하는 시기에 우리가 꺄로로 떠나게 되었다. 원래대로라면 정규 수업 시간에 과목별 선생님께서 투입되는 것이 계획이었으나 꺄로 홈스테이가 확정됨과 동시에 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쉐삐따의 수업과정을 선생님의 동의를 얻어 잠시 참관하고 향후 활동계획을 주지스님과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흘랑따야 이모저모



오플라바 이모저모





| Atti Club |



한국음식 만들기

6월의 첫 주는 한국음식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5월 마지막 주에 멤버들과 함께 떡볶이, 주먹밥, 라면으로 메뉴 선정을 마쳤고, 대망의 6월 6일, 모두 YMCA 구관 옥상에 위치한 주방으로 모였다. (주방의 스펙은 제주베 4월호 Sharing Happy 참조) 떡볶이팀과 주먹밥팀으로 나누었으나 결국 다같이 재료손질을 하고 양념을 하며 요리 전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5층 도서관에 둘러앉아 함께 만든 요리를 시식했고, 당분간 아띠클럽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소식 또한 전했다.

추후 계획

앞으로 총 4회의 아띠클럽이 남아있다. 영상과 음악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을 할 예정이고, 민속촌을 함께 가기로 약속했다.

아띠클럽 멤버, 최고와 스마일이 공부하고 있는 한국어학당에서 활동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인 선생님이 없어 발음 면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7월 중에 기존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아띠들만의 시간을 얻을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어학당을 방문할 예정이다.



중간평가(Mid-term) 02

단원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중간평가'가 다가왔다. 그동안 미뤄왔던 여러 만남들과 약속들, 마음 속에 꼭꼭 묵혀 두었던 단원들의 활동 피드백과 고민들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일주일을 소개한다!



주은지 간사님 활동지 방문



6월 1일 울산Y 주은지 간사님 도착!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던 중간평가! 가장 먼저 우리를 보러 와주신 분은 울산YMCA '주은지 간사님'이셨다. 올 3월에 결혼하신 간사님을 위하여 특별 환영 문구를 손수 제작하였고, 다섯명 모두가 마중을 나갈 계획이었으나 좁은 차를 고려하여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한솔단원과 애린단원이 간사님 마중을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간사님께서는 총 7일 일정으로 가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지내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셨다!

간사님께서는 월요일, 화요일 흘랑따야와 토요일 아띠클럽 활동에 함께 참여해주셨다. 널서리와 관련하여는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이 아이들의 잔근육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피드백을 주셨고, '활동 후 마무리가 미흡한 것 같다'는 충고도 해주셨다. 또한 간사님께서는 달는 나눔에서도 함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맛있는 롯데리아 햄버거도 사주시고, 치킨도 사주시고...) 우리가 활동을 하며 겪었던 여러 고민들에 대해서 '건강한 고민'이라며 격려도 아끼지 않으셨다.



중간평가보고회 150604



중간평가

애초 제비 뽑기로 결정했던 발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섯명은 결국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최종옥 단원은 전체적인 진행을 맡았고 애린 단원(한국어)과 태규단원(미얀마어)이 호스트 기관 소개와 활동, 피드백 부분을 맡았다. 이어서 한솔 단원(한국어)과 선진단원(영어)이 5명의 생활과 문화 체험, 추후활동계획에 대해 이어서 발표했다.(보고는 한국어+미얀마어, 한국어+영어로 동시 진행되었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당일에는 양곤YMCA 총장님이신 닥터 따난과 현지 코디 산드라, 이사진 목사님들, 우리의 동반자 솔리와 뽀누가 함께했으며 한국에서는 KB국민은행 김병재 차장님, 한국YMCA전국연맹 양동화 간사님과 울산YMCA 주은지 간사님께서 자리해주셨다.

준비했던 대로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그간의 활동 보고를 무사히 마쳤다.

그리고 이어서 개인 소감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종옥 단원은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 좋았다고 말했으며 선진 단원은 미얀마 사람들에게서 따듯한 정을 느꼈다고 지난 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또 한솔 단원과 애린 단원은 도중 울컥하는 바람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목사님 한 분이 함께 눈물을 보이기도 하셨다.

마지막으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나중에 KB의 후원 없이도 미얀마에 다시 올 생각이 있느냐, 가난한 미얀마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진심으로 행복하냐 등의 질문에 답하며 아띠들은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분들이 아띠들을 따듯함으로 격려해 주셨고 자리를 옮겨 미얀마 정식을 맛있게 먹고 하루가 마무리 되었다.

BBB코리아 방문 150605



'bbb코리아' 한국어 학당

한국어 학당은 KB국민은행과 BBB코리아의 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다. 중간평가를 맞이해 간사님들과 함께 방문하였다. 이른 시간에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3-4개의 반에서 분반되어 한국어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다.

대표 피드백

의견1: 우리 전 기수부터 오해가 있어온 곳이기 때문에 방문이 조심스러웠다. 방문하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라온아띠의 방향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미 사업으로 정착되어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식 학원이 되어있다고 느꼈고, 이는 라온아띠로써 짧은 5개월 동안 투입될만한 공간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일회성이든 우리의 시간을 얻든, 기반이 되어있어 우리의 활동이 필요치 않아 보이고, 그곳 미얀마 친구들과 친구가 되는 것을 반가운 일이지만 그 친구들과 우리 사이에 학당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제고해봐야 할 것 같다.

의견2: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청년들이 많은 미얀마에 '한국어 학당'을 연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정규 수업에 보조교사로 투입되지 않더라도 3-4분의 한국 선생님께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에 우리가 투입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 무엇보다도 속상했던 것은 아디스쿨에 참여하는 여학당 친구를 우리가 뺏아왔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양곤Y와 미얀마 사람들을 굽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과정에 있어서 불충은 사과드려야 마땅하지만 잘잘못을 떠나 서로의 가치관과 동기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방문한 김병재 차장님과 산드라, 주은지 양동화 간사님이 애쓰시는 모습에 괜히 죄송스러웠다.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임을 느낀다. 우리는 활동 후반이라 다음 기수부터 활동하는 것으로 논의가 마무리되었지만, 마음이 무겁다. 잘 논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

KB사무소 방문150605



KB 국민은행 사무소 방문

중간평가 기간을 맞아 미얀마 UBC 건물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사무소를 방문하였다. 현재 아직까지 미얀마에는 은행지점이 아닌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

개인 소감

태규: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에 관심이 많으시고 미얀마 사람들의 좋은 점이나 환경의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다. 미얀마에 애정이 많으신 것 같았고, 우리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다.

종욱: 인상이 정말 좋으신 김학수 소장님. 우리와 함께 방문한 산드라에게 미얀마와 미얀마 사람들에 대한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셔서 내가 더 감사했다. 그리고 매번 한국 음식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시고 아빠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해 주시는 자상하신 사무소장님 덕분에 감사한 시간이었다.

한솔: 김학수 소장님은 정말 환한 웃음으로 우리들 따뜻하게 맞아 주셨고 집에서 싸오신 도시락의 한국 음식까지 꺼내주시며 우리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했다.

애린: 전화통화로 꼭 만나자는 구두약속만 해왔던 소장님을 드디어 만나 뵙게 되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조언도 해주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따뜻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했다. 자주자주 연락 드리고 한국에서 가져오신 음식도 얻어 먹고 싶다.

선진: 라온아띠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무소장님 덕에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 미얀마 기수들과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소장님 덕에 한국음식 많이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쉐다곤파고다 보족시장 한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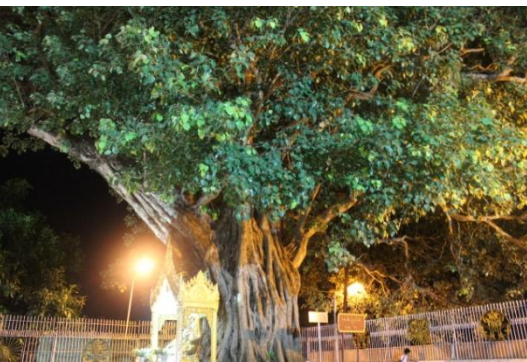


저녁식사와 쉐다곤 파고다

세야산 Rd 앞에 있는 이탈리아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먹고 나서 아띠들이 바라고 바라왔던 쉐다곤 파고다를 둘러보았다. 들어가기 전 다리가 길어서 론지를 입으면 보폭이 좁아진다는 김병재 차장님 덕분에 한 번 웃으며 들어갔다. 쉐다곤 파고다를 둘러보면서, 라온아띠 1기인 기쁨단원에게 간단한 설명을 듣기도 하고, 양동화 간사님과 면담도 하였다. 비가 왔을 때는 김병재 차장님의 인생경험담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보족시장 & 한인식당 '한일관'

김병재 차장님과 주은지 간사님과 함께 기념품을 사기 위하여 보족시장에 들렀다. 하지만 오히려 김병재 차장님이 아띠들에게 팔찌를 사주셨다. 그리고 싱가포르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썰렁하긴 하지만 가끔씩 떠올리면 피식 웃을 수 있는 김병재 차장님의 개그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두 분을 배웅하기 전 한일관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두 분이 벌써 가신다는 게 아쉬웠지만 그간 기다려 왔던 한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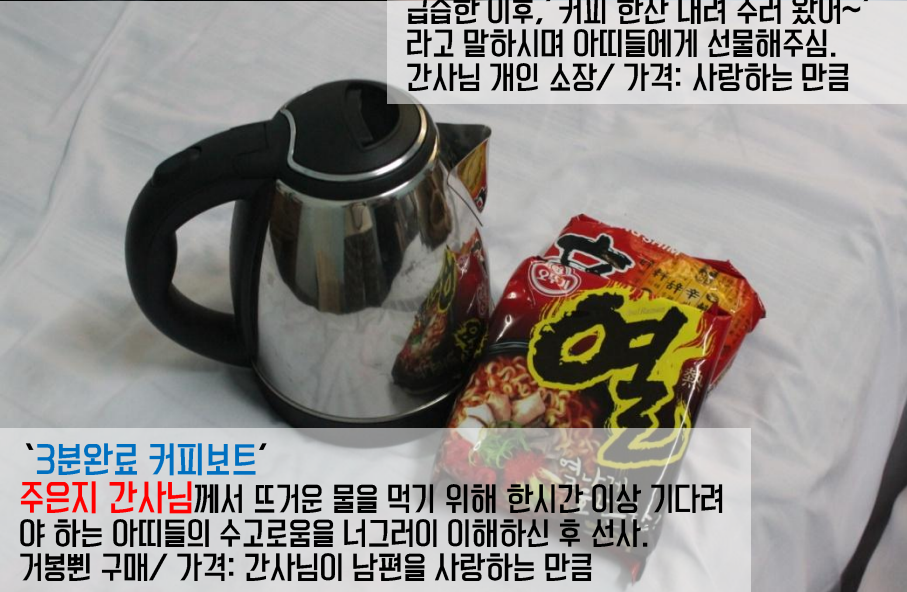
감사해서 쓰는 페이지

중간평가 이후, 김병재 차장님과 간사님께서 주신 선물을 자랑하고자 한다. 부럽짐?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알록달록 끈 팔찌'
김병재 차장님께서 아띠들에게 선물해주심.
보족 아용산 마켓 / 가격: 사랑하는 만큼



'동티모르 피스 커피 및 원두갈이'
양동화 간사님께서 새벽에 아띠들의 방을 급습한 이후, '커피 한잔 내려 주러 왔어~' 라고 말하시며 아띠들에게 선물해주심.
간사님 개인 소장 / 가격: 사랑하는 만큼



'3분완료 커피보트'
주은지 간사님께서 뜨거운 물을 먹기 위해 한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아띠들의 수고로움을 너그러이 이해하신 후 선사.
거봉뵈 구매 / 가격: 간사님이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서로 같겠다고 난리난 원두갈이



향도 좋고 맛도 일품인 원두알들



미얀마 인스턴트 커피 '센데이' 는 가래!



우리는 미얀마 팀 이어에어!

중간평가 피드백

애린 : 정신 없이 흘러간 중간평가였다.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많은 격려와 응원을 받았고, 우리 팀이 직면하고 있던 관계 문제에 대해 따끔한 충고와 조언도 들었다. 맛있는 음식과 아껴두었던 볼거리들, 그 동안 미뤄왔던 여러 만남들과 고민들을 소화하느라 때로는 벅차기도 했다. 그래서 더욱더 바쁜 일정에도 언제나 따뜻한 얼굴로 함께 해주신 양동화 팀장님과 주은지 간사님, 허무개그로 허무한 응원과 웃음을 끊임없이 주셨던 김병재 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 산드라가 중간평가를 준비하며 피드백을 논의할 때도, 그리고 한국에서 온 손님들과 함께할 때도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매번 긴 한국어 대화들이 오가는 식사자리가 불편했을텐데도 피곤한 기색 한번 내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었고, 최선을 다해 환대해 주었음에 고맙다고 인사 드리고 싶다. 내심 중간평가가 나와 우리가 마주하던 고민들이나 문제들에 대한 '답'일 것이라 막연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었다. 여전히 우리의 몫이 남아있고, 남은 기간 동안 그걸 잘 헤쳐 나가고 싶다.

한솔 : 정말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를 정도로 일주일일 흘러갔다. 350ppm과 겹쳐 중간평가 준비와 병행하느라 힘이 들었지만 우리 모두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주은지 간사님, 양동화 간사님과의 면담 이후에 우리 5명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데 도움이 되었고 나 스스로에게도 있어서도 새로운 과제들이 생기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주일 내내 고생해 준 우리 산드라에게 너무너무 고맙다.

선진 : 고대했던 중간평가가 다가왔다. 350ppm과 겹쳤고 주어진 일정을 소화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지만, 오랜만에 보는 한국에서 찾아온 손님들(김병재 차장님, 양동화 간사님, 주은지 간사님)을 보니 반가웠다. 중간 보고를 준비하면서 지난 3개월을 돌아볼 수 있었다. 간사님들께서 그간 확신이 없던 활동들(특히 널서리)에 대해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아주셔서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었고 관계에 대한 고민에 방향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 며칠간 우리 곁을 지켜주신 산드라 간사님께도 정말 수고 많았다고 전하고 싶다.

태규 : 처음에는 무난하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첫날 중간보고회부터 기가 빨려버렸다. 350ppm이 겹쳐 있어서 밤도 새고 했지만, 김병재 차장님의 썰렁 개그와 주은지 간사님과 양동화 간사님 덕분에 무난하게 보낸 것 같다. 그리고 한국인들 사이에서 같이 돌아다녀준다고 고생한 산드라께 너무 감사했다. 지난 3개월을 정리하면서 많은 것을 했구나 생각했고, 남은 2개월 동안 후회 없이 보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종욱 : 정말 바쁘고 정신 없었던 중간평가.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다. 일정은 짧은데 해야 했던 일이 많아서 뻘뻘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하루나 이틀 정도 기간을 늘려서 조금은 여유롭게 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 미얀마는 KB 관계자 분이 오시는 나라 가운데 하나, 그래서 KB 김병재 차장님, 양동화 팀장님, 주은지 간사님, 산드라, 그리고 우리도 정말 수고가 많았다. 제일 인상 깊고 생각나는 일정이 있다면 BBB코리아. 12기 때부터 일정, 연락이 맞지 않아 지연되고 있었고,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 만남으로 서로의 상황과 마음을 알고 해결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다름을 느낀 시간이었다. 그리고 성과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있는 사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개인 면담에서는 양동화 팀장님이 우리 팀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와 일정을 함께한 산드라에게 감사하고 미안하다. 솔직히 그 동안 느끼지 못했는데, 이 곳에서 우리의 엄마는 산드라라는 것을 제대로 느낀 시간이었다.



KALAW MYIN KA 03

해발고도 1,320m의 고원 도시, 켈로! 그곳의 조그만 마을 '밍카'에서도 30분을 걸어 들어가야만 보이거시작하는 우리의 파란 지붕. 이 곳에서 시작한 새로운 생활과 새로운 가족,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을 소개한다.

| 새로운 가족들 |

아이진

못하는 게 없는 든든한 매력으로 여자단원들의 맘을 설레게 하는 19세 연하남... 현재 보유한 디스코 : 에잇(잠)디스코, (주몽에 나오는)해모수디스코, Farm디스코, 카우보이디스코 등 다수



세야마 (아이진 엄마)

우리가 가는 널서리 옆, 학교의 교장세야마 목소리 톤이 한결같이 참하심



우쓰원 (아이진아빠)

종종 집에 급습하여 우리를 위해 요리를 해주심 BUT 정작 본인은 반찬이 맛없다며 집에 가서 드심

사람의 반경 2미터엔 접근하지 않지만 밥 줄 때마다 움찔움찔 다가오는 멜로들



멜로1

멜로2



셀로

애교쟁이↔미친셀로 사이를 시시각각 변이 매번 학교근처까지 아피들을 따라오다가 오토바이에 치여 큰 사고를 당할뻔 하였으나 8시간의 실종 끝에 무사히 우리 곁으로 돌아옴 남자 방 침대 밑에 몰래 숨어있다가 아이진에게 빗자루로 맞음



솔리 (쏘크렐레 투)

그의 잘생김에 속아서는 절대 안된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양동화 간사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빨간맨투맨에 청바지를 입으면 한국연예인으로 변신! 여자단원들은 심장을 (실제로) 부여잡음

러브하우스 2탄 in Kalaw | 우리집 전경



아이진과 솔리,
양고니팀 다섯이 사는 집

잘 보이지 않지만...
빨래터&세숫터&밥터

새로 지어준 화장실♥

7월 말,
셀로의 집이 들어선 부지

셀로 집



미관상 사진을 늘렸을 뿐...
사람 일곱이 사는 게 믿기지 않는 크기의 우리집

밤마다 바람에 펄럭이는 천막

우물?

의자를 활용한 쓰레기통
(셀로가 매일 아침 뒤집어놓음)

| 러브하우스 2탄 in Kalaw | 거실 & 주방 & 남자방



대문을 열면
숯내를 뿜내는 숯자식 ♡



청소불가



Ms.숯의달인



슬리는
연못 색칠 중

네안데르탈 5인의
'불의 발견' 체험현장



종종 디스코 파티 오픈



밥아
예쁘게 들어가렴~



1일3회의 낮잠타임



원칸?

카드에 눈뜬 청년들과 밤마다 유희를 즐김

러브하우스 2탄 in Kalaw | 여자방 & 창고



파란색 천 한 겹을 지나면...



러브하우스 2탄 in Kalaw | 밥터 & 세숫터 & 빨래터



애린의 도시락과 슬리가 빠뜨린 칼 외 없는 게 없는 마법의 우물



빨래터 주제에 뷰가 쓸데없이 나이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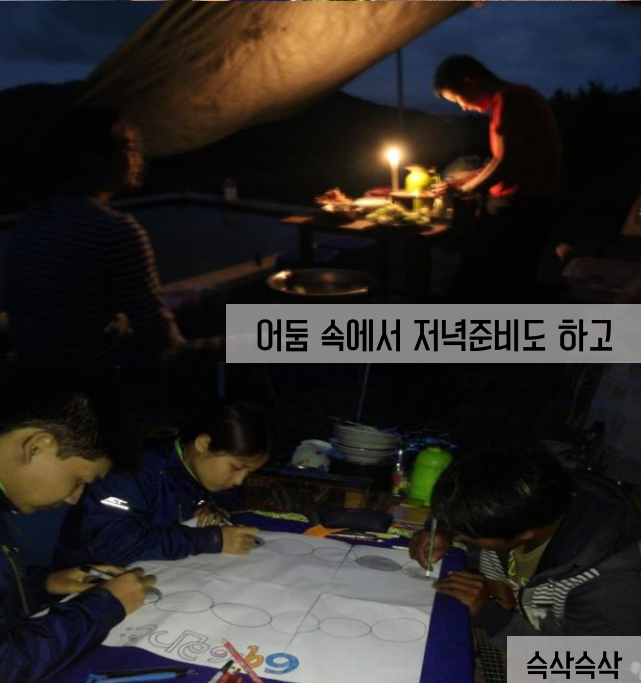
꺄로우한량

밥 먹으라고 재촉함



건조 기능을 상실한 빨랫줄 빨래 마르는데 최소 이틀 소요

아무개의 팬티에선 지렁이가 서식함



어둠 속에서 저녁준비도 하고

속삭속삭



캠프파이어도 하지롱!!!!!!

어둠 속에서 활동준비도 하고

| Nursery & Farm |



넬서리 활동

- 페이스페인팅
 - 모자이크(나비, 거북이, 고래)
 - 점선 도형 그리고 단어 익히기
 - 사과 접어 사과 나무 만들기
 - 올챙이 접어 연못에 붙이기
 - 과일 색칠하고 단어 익히기
 - 체조
- 과일 색칠하기 활동 및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페이스페인팅 활동을 계획하였으나 홈스테이 일정이 짧아져 취소

농장 (총 2회 방문)

- 오렌지 나무 주변 걸가지 정리하기
- 오렌지 농장 주변 물길 내기

피드백

애린 : 처음엔 이곳에 오는 아이들이 3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했던 마을 주민들이었는데 선생님과 양곤Y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지금은 33명의 아이들이 넬서리에 모여 공부하고 있다. 우리가 활동을 준비해 가면,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색종이 위에 적어주셨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우리 활동에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셨다. 아이들도 스펀지 마냥 잘 흡수했다. 불과 2주였지만, 몇몇 아이들은 색칠도 꼼꼼히 잘 칠했고 동요나 체조를 먼저 시작하자고 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를 수록 무언가를 하자고 했을 때 집중하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비교적 잘 따라주었다. 열악한 환경을 마주하고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지만 짧은 시간과 재료의 부족으로 계속 논의만 하고 미루다가 갑작스럽게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게 참 아직도 많이 아쉽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무럭무럭 행복하게 자라주었으면-!



한솔 : 50분을 걸어 학교에 갔지만 우리는 알고보니 학교가 아닌 널서리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 곳의 널서리는 랑따야나 오폴라바의 환경보다 더 좋지 않았다. 일단 제대로 된 교구가 없어 우리가 하는 활동 이외에 아이들은 글씨쓰기를 주로 하고 있었고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플레이어로 만화를 보기도 한다. 색깔 공부를 위해 랑따야에 있는 것과 비슷한 교구를 만들어 전달하고 오고 싶었지만 재료와 시간의 부족으로 그러지 못해 아쉽다. 그리고 서른 세명의 아이들을 선생님 한 분이 보고 계시는데 게다가 아침 시간에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시느라 이 때에는 아이들 통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이때까지 어떻게 해오셨을지 정말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갑자기 떠나오는 바람에 학교 아이들이 원해 금요일에 약속했던 페이스페인팅을 하지 못하게 되어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다.

선진: 33명의 아가들을 세야마 한 분(심지어 동네 간호사 역할도 하심)이 돌본다는 것부터 버겁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규 프로그램이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이라 생각했다. 아이들은 색연필이나 색종이 사용에 꽤 어려움이 없다. 세야마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는 교구를 제작하기로 기획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널서리 외에도 아이들이 나무를 엮어 출렁기를 하고 있길래 꼬마야 꼬마야를 알려줬는데 곧잘 따라하는 걸 보니 진짜

큰 아이들 대상으로 놀이를 생각해볼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 아이들 대상으로 페이스페인팅을 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태규 : 빨라용 어를 주로 쓰는 사람들이어서 애들과의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었고, 선생님의 도움이 없으면 수업을 진행하지 못 했다. 애들의 수에 비해서 선생님도 적고, 교구도 부족해서 우리가 활동을 끝내고 나면 글씨기를 애들끼리 하다가, 선생님이 들어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점심 시간까지 시간을 보냈다.

아침에 일찍 도착하면 전교생들이 학교 앞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장난치며 놀 수 있었지만, 그 시간을 제외하면 다른 학생들을 만나기 힘들어서 아쉬웠다. 마지막 날에는 갑자기 돌아오게 되어서 애들하고 인사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아 아쉬웠다.

중옥: 집에서 오랜 시간 걸어서 도착한 널서리. 밝고 활기차게 우리에게 반가운 인사를 했던 아이들이 생각난다. 아이들은 정말 거칠었다. 그 동안 널서리 활동으로 어느 정도 아이들을 대할 줄 알았다고 생각한 나에게 이곳의 아이들은 정말 힘들었다. 활동으로만 보면 색칠하기, 종이접기를 제법 잘 따라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좋았지만, 아플 정도로 세게 때리고,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에 싫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헤어짐은 이제야 마음을 열고 친해지던 나에게 너무나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넬서리 이모저모



농장 이모저모



| 우리가 만난 사람들 |



1. 뽼뽼 세야마 집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선생님들. 점심시간에 잠깐 쉬는 곳을 찾다가 뽼뽼 선생님의 권유로 하룻밤을 자게 되었다. 처음에는 실례가 아닐까 했지만, 선생님과 더 가까워지는 감사한 시간이었다. 마미(라면)을 좋아하는 우리를 위해 아침식사까지 준비 해주신 뽼뽼 선생님 고마워요.



2. 마을 찾집

마을을 둘러보던 아띠들에게 눈에 띈 마을 찾집. 1층은 마을 찾집, 2층은 선생님의 집이었다. 인상 좋으신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 파시는 팔찌, 인형, 가방, 모자, 치마 등 많은 예쁜 물건들, 그리고 맛있는 과자와 차는 덤. 그래서 아띠들은 자주 애용했다고 한다.



3. 널서리 세야마 집

아이들에게는 엄격하신 호랑이 선생님, 우리에게 는 항상 미소로 대해주시는 선생님의 집. 한국드라마를 좋아하시는 선생님 덕분에 10년 전 드라마 폴하우스를 보며 아띠들은 추억에 잠겼다. 맛있는 과자와 과일도 건네주셨는데, 아 선생님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보고 싶다. π (홀쩍)

| 우리가 만난 사람들 |



5. 톨로지 청년

우여곡절 끝에 톨로지를 타고 궤로에 갈 수 있게된 아띠들은 톨로지를 모는 청년(예몽린)과 궤로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민카FC에 소속해 자기가 출전한다고 축구 구경기에 초대받기도 하고, 집에 초대받기도 했다. 양곤으로 돌아가기 전 자기 집에 한 번 더 들려 달라했지만 갑자기 돌아가게 되어 인사도 못 하고 가서 미안하고 눈을 마주칠 때마다 해맑게 웃어주는 그 웃음이 다시 보고 싶다.

6. 아이진 외할머니네

간식도 먹고, 마을 구경을 하고 싶다는 아띠들의 요구에 아이진이 가는 김에 외할머니 댁을 보여준다고 했다. 간식을 사고 외할머니 댁에 들리니, 이번년도 축구챔피언인 사촌형과, 외할머니가 계셨다. 간단히 우리의 소개를 드리고 난 뒤 차와 과자를 먹으며 아이진의 어릴 적 얘기를 듣다가 돌아왔다.



홈스테이 피드백

한솔 : 걱정과 우려 반, 설렘과 기대 반으로 시작했던 홈스테이는 원래 한 달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간사님의 권유로 2주를 우선 해보고 결정하는 식으로 변경되었다. 출발하면서 도시 양곤을 떠나 산속으로 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설렘다. 우리집은 정말 그림처럼 자리하고 있었지만 마을과 마을 사이에 위치해 다른 마을 사람들과는 동떨어져 생활할 수 밖에 없었다. 하루 종일 동네 골목에서 놀 상상에 가득 차 있었던 나는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때문에 아이진과 솔리와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이걸 미리 산드라에게 물어보지 않았던 우리 탓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산드라는 예산을 전적으로 솔리에게 맡기어 결국 솔리가 중간에서 조그만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전화기를 붙잡고 이리저리도 저리저리도 못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해 불편했다. 솔리는 돈 때문에 시내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미안한지 산드라의 말을 우리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갈등이 심화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갑자기 떠나오게 되어서 사실 나 개인적으로는 다음 기수가 이 곳에 다시 오는 것조차 마을 사람들에게, 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떠나게 되던 날 어김없이 학교에 가는 길에 농장에 나가시는 마을 분들을 만났고 언제 돌아가냐는 말에 토요일에 돌아간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 분들께는 결국 다시 인사를 드리지 못했다. 동민간사님과의 통화를 마치고 결국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그날 따라 유독 애똥했던 아이들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부랴부랴 인사를 하고 우린 떠나왔다. 지금도 이른 아침 농장에 가셨던 마을 분들과, 집에 꼭 다시 놀러 오라고 했던 우리 톨라지 청년 예몽루윈에게 말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너무 너무 미안하고 다들 정말 보고 싶다.

선진 : 산드라가 기대치를 낮춰놓은 상태여서 그런지 집에 처음 도착했을 때 꽤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우리를 위해 화장실을 지어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고마웠고, 이곳에서 천막 하나치고 남녀 구분 없이 야외 테이블이나 솔리의 이부자리에 모여 함께 놀 수 있었던 게 홈스테이의 가장 좋았던 점이였다. 그리고 첫 홈스테이 만큼 불편한 점도 있었다. 동행한 솔리가 예산을 쥐고 있어 우리는 얼마나 예산이 남았는지 몰랐고 물어봐도 말을 안 했으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산드라와 우리 사이에서 우왕좌왕 하는 것이 보여 이는 어떻게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의사소통의 문제이든 예산 문제에서 어떻게 할지 우리와 논의한다는 등) 그리고 떠나는 날을 확실히 알려놓은 상태였는데 한국사무국의 전화 한 통으로 갑작스러운 이별을 고하게 되었다. 애당초 정해놓은 약속들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고 담담하게 떠나지 못해 아쉬울 뿐이다.

중욱 : 우리가 사는 집이 마을 안에 있어서 여러 이웃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다. 우리를 위해 화장실을 새로 지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 꺾로에서도 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했다. 양곤과 다르게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대략 1시간 정도의 거리를 가곤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힘든 것보다 자연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평소처럼 전기를 쓰지 못하고 태양열로 전기를 쓰게 돼서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래서 주위를 더 둘러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예산 때문에 우리와 산드라 사이에서 솔리가 고생이 많았다. 매번 우리를 신경 써주시는 아이진의 가족들 덕분에 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었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았지만 갑작스러운 이별에 아쉬운 마음이 크다.

애린 : 꺾로에서 만난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다. 웃지 못할 상황들도 많았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촛불을 켜고 활동준비를 한다거나, 하루 종일 내리는 비에 빨래가 마르지 않거나 심지어 내가 넣어 놓은 빨래에서 지렁이가 살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지렁이는 고운 흙에서 살 수 있는 친환경적인 것이지만은 조금 속상했다. 하지만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법에 대해 배웠고 불평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처음으로 산드라와 떨어져 우리만의 생활을 시작한 것이었기에, 주어진 '예산'과 관련해 시행착오가 많았다. '처음'이기에 그런 것이겠거니 하고 팀원들과 논의 후에 피드백을 드릴 예정이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으나, 언제나 헤어짐은 슬펐을 것이다. 부디 마을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갑작스럽고 미안하게 떠났다'는 사실이 널리 널리 퍼졌길 기도하는 수밖에...

태규 : 예산이 솔리한테 있어서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어 음식 재료를 사거나 외출을 하게 될 때 많은 트러블이 있었다. 처음에는 많이 불편할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했던 것 보다 나쁘지 않아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태양열로 배터리를 채우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이면 저녁에 전등이 나갈 때가 있거나 전기를 아예 못 쓰게 되어 예정되어 있던 활동이나 다음 날 준비를 하는데 지장이 있었다. 항상 우리를 걱정해주던 솔리와 아이진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생활 할 수 있었다. 마지막에 급작스럽게 돌아와서 아이진과 제대로 인사도 못 했지만 다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350ppm CAMPAIGN 04

국내 훈련 및 지역훈련때부터 줄곧 논의/ 실천 단계를 거쳐왔던 350ppm 캠페인! 미얀마 양곤팀의 생활 속 350ppm과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한 350ppm 캠페인을 담아 보았다.



생활 속 350PPM



미트리스 데이 대표 메뉴: 콩, 두부, 각종 채소, 빵, 계란, 오리알 등이 매주 수요일마다 번갈아 가며 등장하였음.

'양고니'의 350PPM 내부규칙

양치컵 사용

울산에서는 지키지 않았지만 규칙 수가 적어서 추가했던 '양치컵 사용하기'는 의외로 잘 지켜졌다. 여자 단원들은 유리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페인팅 물통을 양치컵으로 썼고, 남자 단원들은 생수로 양치를 하다가 5월에 와서야 양치컵을 사용하고 있다.

MEATLESS DAY(매주 수요일)

일주일에 한 번 MEATLESS DAY로 정한 아띠들은 YMCA 슈프림께 수요일에는 야채나 생선, 계란 요리를 달라고 말씀 드렸다. 식사에 초대받아 고기를 먹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지켜지고 있고, 결로에서는 고기를 구할 수 없어 강제 MEATLESS DAY를 보냈다.

전기 플러그 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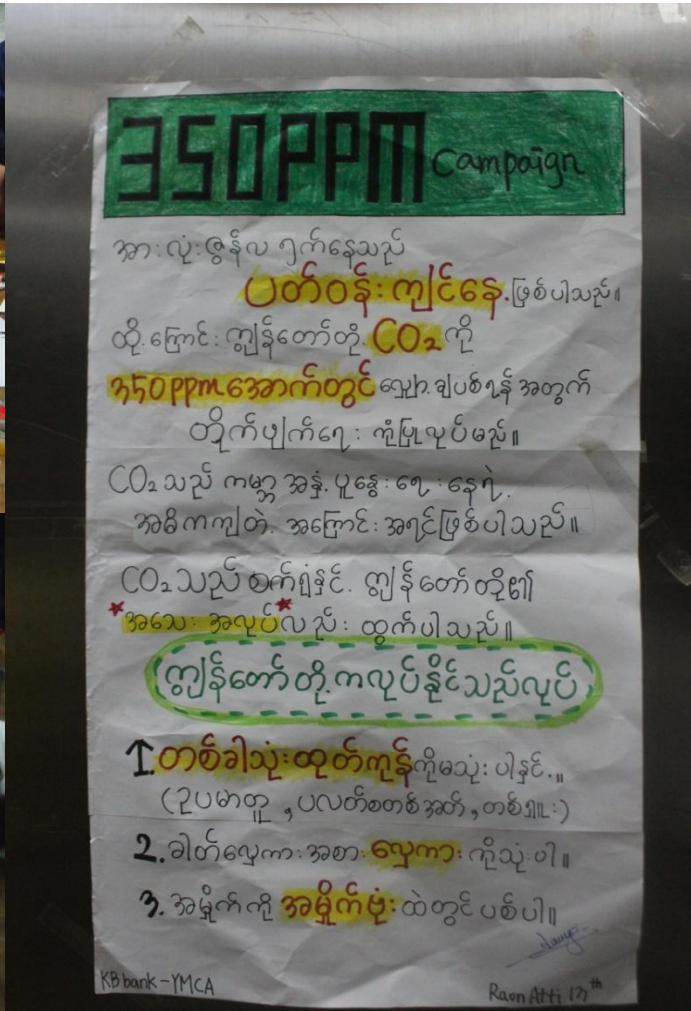
울산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던 '안 쓰는 전기 플러그 뽑기'는 여자 단원들은 쓰고 나면 착실히 뽑아 놓지만 남자 단원들은 1주일에 한 번 정도 기억 나면 뽑고 항상 꼽아 놓고 다니다 여자단원들한테 혼이 나고 나서야 뽑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않기

울산에서부터 계속 지켜왔던 350PPM 내부 규칙이었고 3,4 월까지는 착실히 지켰었지만 40도를 넘어가는 날씨와 사이트를 갔다 오고 난 후의 피로 그리고 7층이라는 벽에 아띠들은 5월에 와서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않기'라는 규칙을 어기게 됐다.

여전히 5층 이하는 계단을 이용하고 있고, 올라갈 때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만, 가끔씩 쇼핑을 가거나 기분을 낼 때는 엘리베이터를 애용하고 있다.

350PPM CAMPAIGN



논의 과정 및 활동 결과

1. 상황분석

첫째, 마을과 거리에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둘째, 우리 호스트 기관인 양곤Y의 스태프들조차 350ppm은 물론 환경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

2. 심화분석(근본원인은 무엇인가?)

삶과 환경이 가까이 맞닿아 있다는 인식 부재

3. 목표 설정

첫째, 양곤Y 유스들을 중심으로 '세계환경의 날'과 '350ppm'을 알린다. 둘째, 환경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 행동으로 인해 파괴될 수도 보존될 수도 있음을 알린다.

4. 가능 방법

위의 내용을 담은 웹자보와 포스터를 동시에 제작해 sns릴레이를 실행하고, 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한다.

홍보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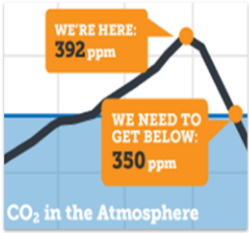
오프라인 홍보 포스터와 관련해서 담당 간사님과 논의 및 피드백을 할 시간이 충분치 못했고, 결과적으로 직접 손으로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다. 엘리베이터와 와이파이 존인 5층, 게스트 하우스 출입구에 각각 1-2개씩 총 5개의 포스터를 부착하였다.

페이스북 SNS 릴레이

사람들에게 350ppm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내용과 관련된 회의를 많이 했다. 영어와 한국어 두 개의 웹자보를 제작하였고, 한국과 미얀마에서 동시에 릴레이를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는 총 3회 공유, 미얀마 현지에서는 슬프게도 산드라의 1회 공유만을 달성하였다.

350PPM SNS RELAY

Raonetti 13th YANGONY



Every fifth of June is 'World Environment Day'. So we'll do 350ppm campaign to reduce CO2 which is major cause of global warming under 350ppm. CO2 can be produced in not only factory but also our daily life such as using elevator, phone, disposable products. **Would you join our campaign?**

OUR ACTION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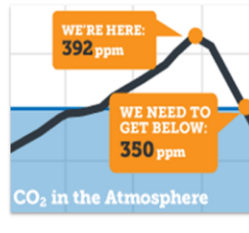
1. Don't use disposable products. (chopsticks, plastic bags, tissue)
If you use one tissue, occur 6g CO2
2. Use stairs instead of elevator.
If you go up and down using elevator, occur average 65g CO2
3. Throw trash into a trashcan.

HOW TO JOIN 350PPM RELAY

1. Take a picture of one of above action.
2. Upload a post (your action picture with this page).
3. Tag 3 friends who join 350ppm RELAY.

350PPM SNS 릴레이

Raonetti 13th YANGONY



매년 6월 5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겹게 들어온 지구 온난화!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인 이산화탄소(CO2)는 공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 우리의 작은 행동에서도 발생합니다. 350PPM 캠페인은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적정 농도인 350PPM 이하로 낮추자는 운동입니다. 당산도 환경의 날을 맞아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작은 실천에 함께해주세요.

액션 플랜

1.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젓가락, 비닐봉지, 휴지 등)
휴지 하나를 사용하면 6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2.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사용한다.
엘리베이터를 한번 사용할 때 평균 65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3.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린다.

참여 방법

1. 위의 액션플랜 중 하나를 선택해 인증샷을 찍는다.
2. 이 웹자보와 함께 인증샷을 업로드 한다.
3. 350ppm 릴레이를 이어갈 친구 3명을 태그한다.

RaonAtti

KB 국민은행 YMCA

RaonAtti

KB 국민은행 YMCA

개인 피드백

애린 : 울산에서는 내부규칙을 지키지 못해 간사님으로부터 많이 혼났었다. 그래서 그런지 미안마에 와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350규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다. 반면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해 실시한 'SNS릴레이'는 실행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릴레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부족했다. 350의 내용을 몇줄의 문장으로 요약해 미안마 사람들에게 알리기란 역부족 이었고, 영어로 제작한 웹자보의 내용을 양곤Y 유스들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다. 널서리 아이들이 너무 어려 아이들과 함께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신문지를 활용해 모자이크를 한다거나 하는 활동을 확장시켜 볼걸-이라는 아쉬움이 크고, 반성하는 바이다. πππ

한솔 : 우선 미안마에서는 쓰레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고 양곤Y 내에서는 인식 개선을 목표로 환경의 날을 알리기로 하였고 쉼빠따에서는 리서치 후에 아이들과 함께 쓰레기통 만들기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갑자기 결정된 산홈스테이 때문에 시간이 다소 필요한 쉼빠따에서의 캠페인은 결국 좌절 되었고,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는 이곳 청년들의 특성을 이용해 SNS릴레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페이스북은 익숙한데 비해 릴레이라는 방식이 익숙하지 않았던 미안마 청년들에게 우리의 캠페인은 낯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도 너무 급하게 준비한 캠페인 이기도 했고, 환경의 날 당일 하루 종일 연

결되지 않은 와이파이 사정 때문에 원활이 진행되지 못하여 아쉬운 마음이다.

선진 : 논의가 심화될수록 기준에 기획한 방향과는 다르게 350ppm을 실시했다. 초기 기수인만큼 캠페인과 환경의 날을 알리자는 좋은 의도를 안고 있었지만 미안마 청년들의 실천을 유도하지 못한 것에 반성한다. 청년들이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지만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아이스버킷챌린지'의 참여방식을 잘 인지하지 못했고, 중간평가와 겹쳐 오프라인으로도 왕성하게 홍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종욱: 가장 먼저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크다. 그리고 그만큼 노력하지 못한 것에 반성을 한다. 매일 만나는 Y의 유스들이 SNS를 주로 하는 것을 보고 아이스버킷챌린지처럼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SNS 릴레이를 계획했다. SNS이기에 쉽고 금방 퍼져 나갈것이라 예상했지만 나부터도 홍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중간평가와 산 홈스테이와 일정이 겹치게 되어 상황도 어려웠다,

태규: SNS와 오프라인으로 350ppm을 알리는 방법까지는 관찰았지만, 우리와 같이 다니는 솔리와 뽀누에게도 설명도 안 해주었고, 다른 청년들과 함께 하려는 생각을 안 한 것에 반성한다. 중간평가랑 시기가 겹친 것도 있고, 준비를 할 수 있었던 포스터 만들기도 미리 준비하지 못 했다. SNS도 단순히 쓰면 따라하겠지라는 생각에 설명도 제대로 못하여 다들 참여방식을 잘 인지하지 못 했다.



INSIDE RaonAttI 05

같은 순간, 같은 얼굴, 같은 웃음소리로 웃는 그들. 그들의 사진을 보면 제법 오래된 가족사진 같기도 하다.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우리의 6월 생활이야기를 전한다.

INSIDE raonatti - ① 산드라 딸 에띠쿠포의 생일

현지 코디네이터 이자 우리의 엄마 산드라. 그녀의 생물학적 '딸' '에띠쿠포'의 생일파티에 초대되었다. 올해 16살인 그녀는 11학년을 마치고, 대학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축복과 웃음으로 가득하던 생일 파티 현장을 소개한다!



산드라 둘째 아들의 여자친구분
(합석에 불쾌하셨을 거라 추정)

개인 소감

한솔 : 전날 우리는 고심 끝에 한국화장품을 선물로 골랐고 당일 점심 때 쫓 가니 온 가족들이 이미 산드라네 집에 모여있었다. 기독교를 믿고 있어 목사님이 오셔 기도를 해 주셨고 간단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어 즐거웠다.

애린 : 에띠쿠포가 덩기에 걸렸다가 얼마나 기적적으로 살아났는지에 대해 산드라로부터 들었다. 올해로 열여섯이 되어 대학교에 간다고 한다. 똑똑하고 총명한 친구 같다. 언제나 '감사합니다'라고 웃으며 말하던 동생의 생일을 축하해 줄 수 있어 기뻐다. 마냥 중학생일 것이라 생각하고, 연한 티트를 사주었는데 이럴줄 알았으면 새빨간 립스틱을 사줄걸 그랬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생일을 맞이하면, 닭고기와 함께 밥을 대접하는 미얀마의 생일문화가 정겹고 즐거웠다.

종욱 : 우선 다시 한 번 산드라의 딸 에띠쿠포에게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3월 홈비지팅 첫 인사 이후 오랜만에 제대로 다시 찾은 산드라 덕. 점심식사만 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많은 가족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축하를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선진 : 가정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것이나 친구들이 놀러와서 다같이 방에 모여 노는 것을 보나 한국의 생일파티와 비교가 되었다 기도는 곤욕이었지만 이런 생일파티를 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태규 : 산드라 딸이 몇 살인지 처음으로 알게 된 날이었고 이름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었던 날이었다. 기독교를 믿는 집안이라 그런지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할 때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했다. 나중에 기도가 끝나고 올라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가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다.

INSIDE raonatti - ② SHAN State 여행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산 주를 걸로 홈스테이가 확정됨과 동시에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구부정한 산을 넘고 넘어 버스로 10시간을 넘게 달려 도착한 그곳! 아띠들의 산 여행을 쫓아가 보았다.



멀고도 멀었던 그곳, 산.

양곤에서 산까지. 그렇게나 먼 곳인지 몰랐다. 버스를 타고 열심히 가고 가도, 꼬불꼬불 험한 오르막길을 가도 보이지 않았던 미지의 그곳, 산. 장시간을 가는 동안 아띠들은 허리, 무릎 등 여러 부위에 통증을 호소했다. 그렇게 약 13시간을 달려 도착한 인레 호수. 4자매가 운영한다는 4sisters 식당에서 1시간 정도 휴식 후 배를 타고 관광을 시작하였다. 피곤함에 더 자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려는 찰나, 빠르게 달리는 배, 눈앞의 아름다운 광경에 아띠들은 연신 감탄을 외쳤다. 나무에서 나오는 실을 베틀로 직접 만드는 실크 공방, 금을 붙였던 파웅도우 파고다, 은을 이용해 직접 공예품을 직접 만드는 은공예 공방, 목과 팔목, 발목에 고리를 하고 우리를 맞이 해준 곳, 다음 날 걸로에서는 핀따야 파고다까지 산드라의 가족들과 함께 다양한 산의 모습을 경험했던 시간이었다.

개인소감

한솔 : 우리는 출발 당일 날까지 우리가 인레호수 관광 후, 걸로로 간다는 사실을 몰랐고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야 산드라 가족들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말 인레호수는 너무 너무 좋았지만 우리는 10시간이 넘게 버스를 타고 와 새벽부터 온종일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거의 끌려다니기에 바빴다. 그치만 산 주는 개인적으로 못다 본 곳들을 다시 한 번 가 보고 싶은 선선하니 정말 여행하기 좋은 곳이다.

태규 : 처음에는 바로 걸로로 가는 줄 알았는데, 따웅지에 도착하고 나서야 인레 호수로 간다는 것을 알았다. 인레 호수는 2번 째라서 딱히 감흥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다시 한 번 더 보고 산드라 덕분에 못 가봤던 곳을 가게 되어서 새로웠다.



애린 : 산드라는 내가 만나본 여성 중에 가장 강력하고 열정적인 사람이다. 고작 20대의 초·중반을 달리고 있는 우리가 40대 그녀의 체력에 못 미쳐 허덕인다는 것이 과연 사실이란 말인가. 핵심 관광지만 쓱쓱 골라 알찬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기쁘다. 산드라의 가족들과도 함께해서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에띠쿠포와 더 많이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관광책자에서만 보던 인레 호수와 끝없이 펼쳐진 자연경관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만, 목적지도 모르고 버스에 타거나 쏟아지는 줄음을 참을 수 없었을 때는 정말이지 엉엉하고 울어버리고 싶었다. 누구나에게 백번 추천한다!

종욱: 양곤에서 산까지의 여정이 고됐다.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버스에서 있으니 몸이 힘들었다. 그래서 피곤한 몸으로 관광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그래도 배를 타고 물위에 자리를 잡은 그 곳을 경험하게 되어 새로웠고, 그 동안

미얀마에서 느끼지 못했던 여행을 하게 되어 좋았다. 우리를 이끌어준 산드라의 체력을 존경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더 좋은 이 곳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 산드라에게 감사하다.

선진 : 어디서 자며 몇 시에 도착하는지 하나도 알려주는 것 없이 불안에 떨게 했던 산드라지만, 인레에 도착하여 우리에게 보트투어를 선물해주고 보트 위에서 쪽잠을 자는 모습을 보니 미안함과 고마움이 밀려들었다. 밍카에 도착하기까지 내 인생의 여행 중 가장 빠세고 많은 관광지를 둘러본 것 같다. 한 시간밖에 못 자고 덥다고 불평했지만, 속으로는 바쁜 와중에 우리를 위해 짧게라도 이런 여행을 계획해준 산드라에게 감사했다. 많은 관광지를 둘러본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 아니겠는가. 한번쯤 가고 싶었던 ‘미얀마 인레호수’를 이런 기회로 가게 되어 덜컥이었지만 기뻐고, 더웠지만 상쾌했다.



INLAY LAKE



INLAY LAKE



PYINTHAYA PAGODA



PYINTHAYA PAGODA



INSIDE raonatti - ③ 밍카 vs 따웅라 축구 경기



밍카 이겨라! 밍카 이겨라!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된 께로. 간만의 시내에서 시장 구경도 하고 기념품샵에서 쇼핑도 하고 샐카우쇄도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우연한 기회로 께로까지 우리를 데려다 준 톨라지 청년 예몽루원이 오늘 자신의 축구경기가 있다고 해서 축구경기를 보러갔다. 처음에는 동네축구인가 생각했지만, 동네축구라고 하기엔 심판과 코치까지 있는 생각보다 큰 규모.

경기가 시작되자 우리도 밍카의 주민이 되어 파란 유니폼의 그들을 열심히 응원했다. 많은 관중들 속에서 소시지와 메추리알을 주전부리 삼아 경기를 관람했다. 골이 없이 0대 0으로 비긴 것이 아쉽긴 하지만, 열심히 달렸던 두 팀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다만 알고 보니 예몽루원이 후보선수여서 뛰지 못했다는 후문이... 아무쪼록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준 예몽루원에게 고맙고, 두 팀 모두 수고했어요!



INSIDE raonatti - ④ 라온아띠 1기 '박기쁨' 단원과의 만남



기쁘다 구주, 아니 기쁨 오셨네!

겔로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날, 기쁨언니/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떠나기 전,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 출발하는 바람에 겔로에서 몇 번 연락을 드렸지만 우리는 자주 씩혔다. 이유인 즉슨 기쁨언니/누나가 바빴기 때문... 기쁨 언니/누나가 13기 국내훈련 동반자였던 '박새롬' 동반자의 친언니라는 것은 결코 안 비밀!

그녀는 라온아띠 1기 (!!!!) 스리랑카 팀 출신으로 현재 '지구촌 나눔 행동' 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양곤Y 건물에 세미나가 있어 방문하였다가 13기와 기적적인 만남을 달성한 이후, 팀원들의 고민이나 불만을 아무런 군소리 없이 들어주며 때론 충고도 아끼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신다. 겔로에서 풀과 야채만으로 연명하던 우리에게 맛있는 샐러드를 선사해 주셨다. 고맙습니당♥





Mr. Butter's butter poem

버터씨의 버터시

길거리의 아주 작은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에 잠기는 감성주의자.
느끼함은 덤으로 가지고 있는 그가 감성 충만한 메시지를 전한다. | 최종옥단원



안녕, 안녕

참 편했던 슬리퍼 생활도
불편했던 버스 생활도
한국에 대한 그리움도
나를 수없이 생각했던
지난 날들도
웃고, 울며
뜨거웠던 순간들도

안녕

소중함을 잠시 잊었던
존재들도
간절히 보고 싶었던
내 사람들도
잠시 멈춰있던 내 일상도

안녕

안녕, 그리고 안녕

다섯의 이야기

HANSOL AERIN SEONJIN JONGOK TAEGYU



| RAONATTI 13Th YANGON HANSOL |

정말 꿈만 같은 16일이었다.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만 자란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별을 본 것이 처음이었고 그렇게 순수한 사람들을 만난 것도, 그림 같은 풍경을 선물 받은 것도 나에게겐 모두 축복 같았다.

이 곳에 있는 동안 양곤에서와는 다른 행복에 취해 있었던 것 같다. 아침엔 부지런히 일어나 도시락을 싸 들고 산길을 걸어 학교에 갔고, 돌아와선 오랜만에 해가 찌기라도 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옹기종기 모여 빨래를 하기 시작했고 남은 시간엔 그림을 그리거나 일기를 썼다. 그리고 밤엔 정말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던 별을 보고 들어와 일곱 명이서 한 이불을 나눠 덮고 이야기를 하고 게임을 했다.

사실 처음 도착해서는 조금 걱정을 했다. 마을에서 걷고 또 걸어 50분 거리에 위치한 우리 집은 이웃도 없었고 전화가 잘 터지지 않고 전기도 없었다. 그저 솔리, 아이진, 우리 뿐 이였고 친구라곤 개 세 마리가 전부였다. 그치만 그 덕분에 우리끼리 더 애뜻해지지 않았나 싶다. 밤마다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었고 마당에 불을 지펴놓고 솔리와 아이진의 이야기를 들었다. 솔리는 그간 함께 지냈던 3개월보다 이 곳에서의 2주 동안 훨씬 더 친해졌고, 아이진은 감히 미안마의 명물이라 내가 단언할 수 있다.



| RAONATTI 13Th YANGON HANSOL |

그리고 이웃은 없었지만 길 위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하루, 이를 걷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네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학교 가던 길에 아직 익진 않았지만 열심히 키우셨을 오렌지 하나를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울면서 언니랑 애린이랑 먹었던 기억이 난다.

갑작스럽게 떠나오던 날을 생각해 본다. 그날따라 널서리 아이들은 유독 나를 더 잘 따랐고, 뽀뽀 언니와 학교 선생님들은 하염없이 울기만 했던 나를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셨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 원랜 농장에 가 계실 시간인데 아저씨는 우릴 위해 마지막 점심을 만들고 계셨다. 짐을 싸며 불 앞에서 계신 아저씨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무거운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괜히 더 장난을 치는 아이진을 보니 괜시리 더 눈물이 나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꺄로에서 늦게 돌아오던 날 우릴 위해 초를 켜고 저녁을 만들어 주던 아이진, 꼭 남편과 아이들과 다시 오라던 아저씨, 코감기로 고생하던 나에게 약을 쥐어주신 널서리 선생님, 마지막 날 세야마가 지어주신 참 따뜻했던 쌀밥, 나를 졸졸 따라다니던 널서리 꼬마들, 매일 아침 학교에 갈때면 언제나 앞장을 서던 헬로, 팔짱 끼기를 좋아하는 뽀뽀 언니, 빨라옹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꼭 자기 집에 다시 오라던 톨라지 청년, 스무 살이 넘어 누군가와 연애를 하면서 내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 항상 고민했다. 그런데 이 곳에서 그 무엇도 준 것이 없는 나를 이유 없이 사랑해준 이 사람들 덕분에 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람이라는걸 처음 깨달은 것 같다. 덕분에 이곳에 사는 동안 나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었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다. 참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기억들이 생겼다.



| RAONATTI 13Th YANGON SEONJIN |

#내가 기억하고 사랑하는 민캣

응어리를 다 받아줄 것만 같던, 밤이면 별자리를 다 그려볼 수 있을 것만 같던 드넓은 하늘. 덩달아 마음까지 사랑이게 하던 바람. 홀로일 수 있게, 한 평짜리 내 방이 되어준 바위들. 숲내를 지우던 빨래터와 빨랫줄. 마냥 앉아있으면 말동무가 나타나 심심할 틈 없었던 우리집 밥상. 그리고 있으면 먹을 것이 있는 줄 알고 항상 달려나온 헬로우와 쭈뼛거리던 멜로우 둘. 머리털만 봐도 웃긴 아이진.



7월 2일, 양곤에 돌아왔다

모든 것이 꿈만 같다. 내가 언제 민캣에 있었는지, 거기 살긴 했었는지. 떠날 때는 쉐로우를 만지던 감촉이 생생했는데 야간 버스를 타고 양곤에 오니 하루 만에 그 느낌이 열어지고 있다. 널서리를 하다가 저녁에 양곤으로 돌아가야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랑따야, 오플라바 아이들보다도 정을 줬던 아이들이기에 갑자기 떠난단 사실이 와닿지 않았다. 그냥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볼 뿐이었다. 뒤통하고도 인사를 했다. 날 너무도 깊게 안아줘서 슬펐다. 세야마들은 시무룩한 내게 까웅까웅 또아(잘가)하라고 했다. 다시 만날 것을, 아니면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 믿기 때문인건지. 나도 그런 마음으로 웃으며 떠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짐을 싸는데, 내 잠자리 옆 창문 밖으로 쉐로우가 멜로우 원투와 달리고 있었다. 그냥 눈물이 났다. 별 추억이 다 스쳐 지나갔다. 아이진이 우쿨렐레를 튕기며 ‘궁스매가 흘러라~#\$. 머스매가~’ (페페쨌 ver. 뽀라웅어) 하던 게 가장 먼저. 짐 싸던 어제 아이진은 해맑게 장난을 쳤다. 숲내 나는 천막을 얼굴에 부비작거리면서 우스꽝스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장난으로 ‘뽀라(좋아)?’하고 물어보니 ‘마뽀부(아니)’라고 착하게 대답해줬다. 꼭 다음에 한국에 있는 가족을 데리고 놀러 오라고 했다. 내가 다시 올 수 있을까...란 생각도 없이 그저 꼭! 다시 오겠다고 대답했고, 정말 그러겠다고 나에게 약속했다.

너무 덜컥이고, 어제는 화가 나고 정신이 없어서, 졸려서, 이제야 정리하려는데 몇 시간 만에 몸이 양곤에 맞게 변한 것 같다. 참~ 길었던 것 같은데, 고작 2주였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추억이 생긴 적이 별로 없어서, 그 집과 쉐로우, 아이진이 너무 그리다. 나는 또, 잘 잊고 즐겁게 기억하고 주어진 것들에 집중하겠지만... 그걸 알기에 우리를 위해 배려해주고 즐겁게 해준 민캣을 오늘 하루는 무겁게 마음에 담아두고 싶다.



| RAONATTI 13Th YANGON AERIN |

#1. 헤어짐에 대해 생각 하게 되던 날들이었다. 아이들에게 2주간의 짧은 이별을 말해야 했을 때, 꺾로에서 양곤으로 갑작스럽게 돌아오게 되었을 때, 돌아와 우뚝이 아저씨를 보았을 때, 텔루 아저씨의 정신 없는 수다를 들었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을 맞닥 드렸을 때, 굳이 일기장을 펼쳐 7월 몇 일이라는 날짜를 적지 않더라도 그때마다 헤어진다는 것이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다.

꺾로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경계의 눈초리가 아닌 환영과 환대의 마음으로 우리를 맞아주었다. 낯설었지만 익숙했고, 따뜻했다. 우리가 꺾로를 떠나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꼭 가족들과 함께 다시 오라고, 심지어 아저씨께선 너의 아가(ㅎ)와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까지 말씀해주셨다. 그때마다 나도 사람들을 향해 한국에 꼭 오라고, 그럼 우리 집에서 자고 먹고 이곳에서 받은 모든 것을 ‘쭈에메(대접하다)’ 하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의 말이 ‘언제 밥 한번 먹자’ 라는 말과 같이 언제고 쉽게 만나고 당연히 헤어질 수 있음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슬펐다.

중간평가 보고회 때 소감을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내 앞 차레가 한솔 언니였는데, 언니가 울 때까지만 해도 나는 씩씩하게 소감을 말하리라 다짐했었다. 그러나 나는 준비했던 소감의 첫 줄을 읽기도 전에 목이 매어, 촌스럽게 고개를 숙여버렸다. 김병재 차장님께선 ‘왜 울었냐’며 내게 물으셨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 나 대신 산드라가 ‘그건 아마도 네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일 꺼야’ 라고 말해주었다. 참, 쓰면서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만, 나는 사랑하는 것 같다. 일기를 쓸 때 손전등을 비춰주었던 아이진을, 풀 하우스 다 보고 천천히 가라고 하시던 널서리 선생님을, 언제나 따뜻한 포옹으로 나를 맞이하고 배웅해주었던 뽀뽀 언니를, 떠나던 날 애써 내 눈을 피하던 녀석들을, 클리닉 차에 나 혼자만 태워주겠다던 리고 아저씨를, 마음 깊이 사랑 하나보다. 그래서 곧 다가올 이별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이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 아직도 분명하지 않지만, 그것만이- 내가 사랑 받았고, 이들을 사랑한다는 사실만이 더 선명하게 떠오를 뿐이다.



#2. 라온아띠로 5개월을 산다는 건 참 피곤한 일임을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냥 관광객으로 이 나라에 왔다면, 한 달간의 국내훈련을 거치지도 않고, 네 명의 사람들과 함께가 아닌 나와 늘 함께 지내오던 사람들과 한 일주일 머물다가 돌아가는 관광객이었다면 어땠을까. 어렵게 얻은 기회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그래서 막 화도 나고, 성질도 나고 그랬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아무리 피곤해도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해 본 것이 나은 일인 것 같다.

#3. '생은 어디에나 있었다' 라는 류시화의 말이 생각한다. 그는 인도를 무려 15년 동안이나 여행하며 위와 같이 말했는데, 고작 미얀마에서 5개월을 지낸 내가 그 말을 이해해보려 한다. 생은, 어디에나 있었다. 생은 양곤에서 10시간을 넘게 달려- 거기서 또 두 시간을 들어가야 나오는 밍캣에도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코흘리개 빨라웅 아이들과 하루 종일 밭일을 해 오천원이 조금 안 되는 소득을 버는 농부들의 하루에도 있다. 마찬가지로 생은 이곳에서 비행기로 여섯 시간 떨어진 곳에도 있다. 자신도 휴학하고 싶다고 말하는 친구의 불안한 카톡에도, 취업에 '실패'했다고 말하는 선배의 불면에도, 서울 광화문에도, 팽목항에도 생은 있다. 특정 국가의 국민이라거나 특정 국적을 가졌다는 조건을 굳이 달지 않더라도 소중한 말할 수 있는 '생', '삶'이 있다. 이곳에서 그것을 깨달았다. 그러기에 나는 앞으로도 그곳 어딘가에 있을 나의 자리를 찾아서, 나의 몫을 찾아서 조금은 더 헤매어보고 싶다.



| RAONATTI 13Th YANGON JONGOK |

우리가 그 동안 지내온 생활과는 정말 달랐던 께로에서의 시간. 수고했다는 선물과 동시에 다른 환경을 느껴보라는 일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본다. 항상 우리 옆에 있었던 친구 솔리와 아이진, 오랜 시간 걸으며 많은 생각을 했던 널서리 가는 길, 농장들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반겨준 집, 고요하고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준 자연.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지금도 보고 싶을 만큼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들과 함께한 지난 날들이었다.

‘너에게는 말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양동화 간사님이 개인 면담 때 해주신 말씀 중 하나이다. 그렇다. 어렵다. 관계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나 혼자 그 생각에 갇혀서 표현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고, 내 말에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올까 두려워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 곳에서 4개월을 지내면서 내가 가장 많이 부족했던 것이 바로 ‘솔직함’이다. 마음을 열지 못해서 솔직하지 못한 적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나도, 팀원들도 힘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수많은 갈등 때문에 괴로운 날도 많았지만,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피하려고만 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에세이들도 마냥 아름답게 잘 지내는 식의 글들만 써왔다. 나도 모르게 무조건 해피엔딩!을 외치며 글을 잘 써야 한다는 압박도 있었다. 적어도 나에게서는 솔직해야 했던 에세이에서조차 그러지 못한 것에 부끄럽다. 많은 갈등들이 힘들고, 싫으면서 아름답게 포장하여 쓰는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것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

그러나 이제는 바뀌려고 한다.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것. 지난 시간들에 후회하고 아쉬웠던 만큼 이제는 시작해보려고 한다. 아직도 나에게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기에, 그리고 활동이 다 끝나도 우리의 관계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그리고 그 것이 오래 전부터 내가 솔직하길 바라고, 이 곳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길 바랬던 팀원들에게 내가 꼭 해야 하는 내 노력이기도.



I RAONATTI 13Th YANGON TAEGYU I

#1 3개월 동안 보고 배운 것과 중간 평가를 보내면서 배운 것을 정리해보면서 아쉬운 점을 많이 찾을 수 있었다. 사진을 좀 더 찍을 걸, 사람들하고 좀 더 얘기해 볼 걸 좀 더 노력해볼걸... 그 때는 내가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씩 아쉬웠다. 매번 고쳐간다고 하지만 발전이 없는 것 같아 불안하면서도 만나는 친구들이나 팀원들이 변했다고 하니 조금 안심이 되었다.

#2 처음 민카에 도착했을 때는 아.. 어떻게 1달을 보내지 라고 생각하며 우울하게 있었고 자신도 없었다. 하지만 나에게 ‘아이 러브 큐’라고 장난을 거는 아이진, 언제나 맛있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신경을 써주시는 아저씨와 선생님, 그리고 학교에 도착하면 달려와 안기는 학교 아이들과 널서리 아이들... 그들 덕분에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다. 물론 팀원들과 솔리도 있었고.. 경치도 좋긴 했지만 위 사람들이 없었다면 즐겁게 보낼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든다.

#3 7월 2일에 돌아오고 나서 꺄로에서 보낸 16일을 돌이켜보니 정말 후회 없이 보냈던 것 같다. 그토록 바라던 홈스테이도 방식이 다르긴 했지만 해보았고, 양곤에서 처럼 널서리를 갖지만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법으로 활동을 시도 해보기도 했다. 갑작스럽게 돌아오게 되어 아이진과 그 부모님들, 학교 선생님과 아이들, 톨로지 청년, 그리고 웰로와 제대로 작별 인사를 못 하고 와서 미안하다. 처음에는 2주나? 였지만 지금은 2주만 있다 온 것이 아쉽다.

#4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D-day 25일. 정말 한국에 돌아가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만나는 사람들 마다 언제 돌아가냐고 묻고 미안마에서의 생활이 즐거웠냐고 물어본다. 누가 물어도 물론 행복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남은 날들도 즐겁게 보내다 가고 싶다.



높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낮은 몸에 감혀 있대도

평범함에 짓눌린 일상이 사실은 나의 일생이라면

밝은 눈으로 바라 볼께. 어둠이 더 짙어질수록
인정할 수 없는 모든 게 사실은 세상의 이치라면

활짝 두 커를 열어 들께. 침묵이 더 깊어질수록
대답할 수 없는 모든 게 아직은 너의 비밀이라면

9와 숫자들 '높은 마음' 中